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인종평등선교주일

본 예배 자료들은 인종평등선교주일 준비를 위한 목회자 및 리더 자료집의 일부입니다.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다른 예배 요소와 함께 통합하여 사용하세요. **본 자료들은 이사야 49:1–7, 시편 40:1–11, 고린도전서 1:1–9, 요한복음 1:29–42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피로가 가득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 교사, 간호사, 혹은 부모에게 물어보더라도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더 깊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의 피로(compassion fatigue)에서 비롯된 아픔이요, 묵직한 욱신거림과 같은 정의의 피로(justice fatigue)이며,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끼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영적 고갈입니다. 그러나 인종평등선교주일에 성경은 우리의 피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모든 지친 영혼의 탄식을 대변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너무 더디게 느껴질 때, 불평등의 구조가 계속 진화할 때, 우리의 선한 행동이 거대한 불의의 바닷속 한 방울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정이나 가벼운 위로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숨이 멎을듯한 부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곤한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좁히지 않으시고, 오히려 확장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고, 구원이 땅 끝까지 미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안전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욜랜더 피어스(Yolanda Pierce) 박사는 말합니다.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안일함을 깨우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9장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피로를 부정하지 않되, 거룩한 결단으로 방향을 돌려놓는 부르심입니다.

시편 40편은 다른 방식으로 그 대화를 이어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의 무게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들의 느리고 신실한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에도,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으키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고, 입에 새 노래를 주십니다. 재활용된 노래가 아닌 새 노래입니다. 인종평등선교주일의 부르심은 아마도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의와 기쁨, 담대한 믿음의 새 노래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배신이 되는 때가 있다." 그때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유혹은 여전히 크고, 특히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조너선 윌슨 하트그로브(Jonathan Wilson-Hartgrove)는 『Reconstructing the Gospel(복음 재구성하기): Finding Freedom from Slaveholder Religion』에서,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2026년을 사는 교회에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정의에 의해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의 없음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남겨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 영적 은사도 부족하지 않다." 교회는 이미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쓸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변화를 만들기엔 규모가 작거나 지쳐 있다고 느끼는 교회들에게 바울의 이 말은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게 전부입니다. 논문도 아니고 전략 문서도 아닙니다. 단지 초대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그분이 이미 일하고 계신 곳을 보라는 초대입니다. 성령이 치유하고 흔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자리를 보라는 부르심입니다.

오티스 모스 3세(Otis Moss III)는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둠은 우리 안의 빛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어둠 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제자도의 은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두워도 그래도 계속해서 춤추는 것 —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불의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로 절망에 저항하며 저항 너머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기쁨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거룩한 저항입니다. 오스틴 채닝 브라운(Austin Channing Brown)은 한 백인 학생이 인종차별의 고통을 목격한 후 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제게 더 이상

특별선교주일

설교 자료

인종평등선교주일

선택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전환점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민자와 난민 공동체가 끊임없이 비인간화되는 현장을 목격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끔찍한 피해와 폭력, 학대를 피해 도망친 많은 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점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며 "이건 잘못됐고 끔찍한 일이야, 어떻게 감히?!"라고 외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현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법정 감시자, 옹호자, 행진하는 이들이 되어 대중에게 이 일이 용납될 수 없음을 알리는 공개적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파할 때 우리는 용기의 편에 서야 합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목적을 알리는 예언자적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허세 부리는 방식이나 일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온 삶을 다해 사랑하기로 한 꾸준한 결단으로 말입니다.

윌리엄 바버(William Barber) 목사는 지팡이를 짚고 만성 통증을 견디며 설교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건히 버티십시오." 그는 도덕의 호는 저절로 휘어지지 않으며, 싸움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휘게 만든다고 상기시킵니다.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나서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정의의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로가 소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변화의 연료가 되도록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돌보면서도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직 이루실 일이 남았음을 보십시오. 성소와 대피소와 거리에서 성령이 여전히 움직이고 계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입에 새 노래를 넣어 주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보았을 때, 담대히 그 노래를 부르십시오. 온전히 그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합감리교회의 헌금은 단순한 재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담대한 표현입니다. 헌금은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 사역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언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관대함은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고, 은사를 나누며, 더 큰 일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 주고, 공동체를 더욱 가까이 잇는 관계를 만듭니다.**

작성자: 네이튼 알레지 목사(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빌 해리슨연합감리교회 담임)

영향력을 위한 연합: 우리의 관대함은 공동체를 강화하는 연결을 만듭니다.